

농진청,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 위한 4대 중점분야 선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다.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2018년 24.7백만 톤 대비)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객관성·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정보 통계자료 구축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탄소저감기술 확산 등

발표했다.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의 4대 중점 분야는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탄소저감 기술 현장 확산 등이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탄소 발생 감축, 흡수원 강화 등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천을 유도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에 2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2일,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심재학 신임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장 오늘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임 심재학 단장이 제19대 새만금사업단장으로 13일 취임한다.



심재학 단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2023 세계잡버리대회 등 차질없는 기반시설 준비로 새만금이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견을 밝혔다.

또한 세계적 위기인 기후변화 및 코로나 등에 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 조성 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학 단장은 군산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6년 공사에 입사해 기술인프라지원과장, 전북지역본부 기반관리부장 및 익산지사장, 동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T공사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6만4,442원, 대형유통업체 36만8,5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4%, 0.2% 소폭 상승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설 명절 차례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다.

설 차례상 비용 작년과 비슷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조사 결과 각각 0.4%·0.2% 소폭 상승

aT공사(사장 김준진)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6만 4,442원, 대형유통업체 36만 8,5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4%, 0.2% 소폭 상승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을 3주 앞둔 지난 11일 전국 19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큰 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증가한 쌀과 산지 재고량이 풍부한 사과, 배 등의 과일은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난해 눈잠파

로 수확기 피해를 입은 대추, 도라지 등의 임산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한 소고기는 가격이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전체 28개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쌀, 사과, 배 등 일부 품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평소 대비 1.4배 확대·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산물 소비부족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수품 할인 기획전을 추진해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권형 수급관리처장은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19일과 28일 두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알뜰 소비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성수품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통 차례상 차림비용"과 더불어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관련 자료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경원동 관광호텔 건축 현장 지역업체 참여시켜달라”

전주시-전건협 전북도회 유담건설 본사 합동 방문

전주시와 대한전민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전주 한옥마을 인근 경원동에서 관광호텔(지상10층, 지하3층) 건축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유담건설 본사를 합동으로 방문했다.

전주시와 협회는 이날 해당사업의 시공사인 유담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건의했다. 전주시청 유상봉 건축과장과 김용 하도급 관리팀장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전주



시와 협회는 합동으로 해당 현장에서의 관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 건축과 유상봉 과장은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다수의 지역업체 참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해당사업의 홍보와 기업의 호의적 이미지 구축과도 연결된다"면서, 지역업

체의 하도급률 80% 이상과 지역자재 사용률 80% 이상을 적극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즉각적인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지역의 소비 및 건설자재의 소비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유담건설 업무담당자는 "추진 중인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금융자산 1조원 달성

전북농협, 달성탑 전달식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2일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에서 농협상호금융 '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전북농협이 직접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설된 상호금융 '금융자산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달성탑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달성 시 수여된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주김제완주축협의 금융자산 1조원 달성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과 고객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



을 다해 준 임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의 성장·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우량 기업여신 확대·고객 관리 강화

농협은행 전북본부 경영전략 화상회의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2일 농협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2022년 경영전략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경민 본부장을 비롯한 도내 52개 전 영업점 사무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해준 임직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의 성장·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전북도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해 12월 전북고용률, 실업률 모두 소폭 상승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0.8%)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9.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는 3만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7.0%)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만18,000명(17.8%), 건설업 2,000명(2.5%), 제조업 2,000명(1.2%) 각각 증가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만2,000명(-14.1%), 농림어업은 7,000명(-4.4%), 사업·개인·공공서

비스업은 4,000명(-1.3%) 각각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만 9,000명(10.6%),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종사자는 6,000명(2.0%), 사무종사자는 1,000명(1.2%) 각각 증가했으나 관리자·전문가는 1만8,000명(-8.2%), 농업·어업·수산업종사자는 5,000명(-3.5%) 감소했다.

실업자는 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7.0%)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19.0%) 증가했고, 여자는 2만3천 명으로 2백명(0.9%) 증가했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했다. /최대희 기자

이진산 농협 신임 임실지부장 부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이진산(50) 신임 지부장이 농협에 입사한지 26여 년만에 고향인 임실지부장으로 부임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임실을 출신으로 신홍고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앙회 입사 후 김제시지부, 전북김제시지부, 기획실,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는 등 다양한 업무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지부장은 "임실군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소통 강화,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자체협력사업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서부산림청, 2022년 숲 가꾸기 사업 발대식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지난 11일, 2022년 숲 가꾸기사업의 활력과 산림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국유림영양관리과 담당공무원 등 38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무사고·숲가꾸기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숲 가꾸기사업 결의문 및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사업장 조성을 다짐하였으며,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안전교육 전문강사의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부청은 올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인 6천ha의 산림에 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최근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생활권 주변 공익림가꾸기 추진으로 국민 건강 수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숲 가꾸기사업은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산림재해에 안전한 산림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고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는 임업의 혁신동력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